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속자 이영찬 신부와 네 명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 동참 호소

지금 ‘평화의 섬 제주’는 해군 기지의 일방적인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큰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비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결국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은 극도로 심화되어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군 기지는 이미 건설 과정에서 세상에 돌도 없는 천혜의 땅,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일부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해 왔습니다. 또한 해군 기지는 장차 그 가상 적인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여 평화의 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주민들을 선두로 하여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지난 7 년은 하루하루가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압과 폭행 등 인권 침해는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의 수는 600 명이 넘고, 구속된 양심수 활동가들만 해도 20 명에 이릅니다. 급기야 지난 1 월에는 20 여명의 수녀님들이 연행되었고, 3 월에 이어 다시 사제가 연행 구속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사제, 수도자들로조차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영찬 신부님과 네 분의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하느님 백성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남쪽의 고요한 작은 고을, 강정 마을에서 자행되어 온 불법적인 행태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의 성당을 비롯한 각처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서명운동 기간: 2012 년 11 월 11 일(일) ~ 12 월 2 일(대림 1 주일)
* 서명받은 용지를 12 월 8 일(토)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주소: 우)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 가 1 가톨릭회관 621 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전화 02-773-1050 / 팩스 02-773-1051

2012 년 11 월 6 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한국천주교 전국 15 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서울, 수원, 안동, 원주,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청주, 춘천) /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 천주교 인권위원회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 공지사항

1.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구역장님 및 성모위원장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2. 다음 주 미사후 공동체 식사가 있겠습니다.
3.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서명서관련



죽음, 또 다른 내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까? 늙어도 죽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가지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즐기려고만 했다면 죽음은 두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죽음은 크나큰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부리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인생을 물 흐르듯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성실히 준비하면 내일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일 뒤에 내일, 그 내일 뒤에 내일, 그 뒤에 내일은 죽음입니다.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내일은, 오늘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날이 신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가니 매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면 목어(木魚)라는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지요. 그래서 목어가 깨어있음의 상징이랍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 않는다고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면 눈을 뜬 채 잘 수도 있으니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심어진 선성(善性)으로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친절과 도움으로 애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성실히 준비하면 내일이 아름답듯이,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준비한 그 성실함이 아름다운 천국을 열어줄 것입니다. 혹, 내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천국을 앞당겨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열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일의 하나이며,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도, 떠나온 나도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준비하며 성실히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란 미래에 있을 멸망이 아닙니다. 종말이란 우리를 겁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이 사랑한다 말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잿빛 11 월, 죽음을 묵상하는 달, 우리의 삶이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과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나를 찾아올 죽음이 친구처럼 편하고 반갑도록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며, 가장 확실한 우리의 내일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